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투자의견 / 적정주가
Not Rated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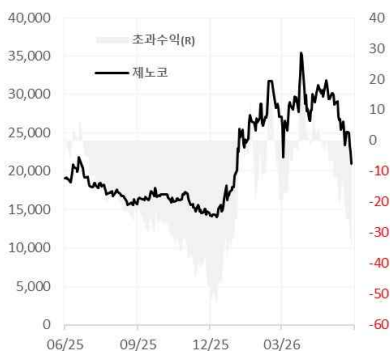
Company Data

현재주가 (5/29)	21,000 원
시가총액	204.5 십억
자본금	44 십억
발행주식수	10 백만주
유동주식비율	53.7 %

Stock Data

52 주 최고가	36,900 원
52 주 최저가	13,920 원
일평균거래액(60 일)	78 억원
외국인 지분율	20.6 %

주가



361390 (KQ) 상사, 자본재

제노코

KAI가 찍은 우주부품 히트카드 제노코 급부상

- KAI 등에 업은 우주부품 잠식
- 위성 송신기, 해외 독점 균열
- 수주잔고 685 억, 하반기 폭발 대기

KAI 등에 업은 우주부품 잠식

KAI 편입은 제노코의 최대 변화이다. 위성통신·항공전자·EGSE가 체계사업 안으로 들어가며 단품 납품사가 아니라 항공우주 전자부품 내재화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분기 OBC-AIU 수주는 편입 이후 협력의 출발점이며, KAI 양산·수출 물량과 묶일 때 실적 레버리지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투자포인트이다.

위성 송신기, 해외 독점 균열

X-Band Transmitter는 제노코의 기술 프리미엄 핵심이다. 국내 최초 국산화, 720Mbps급 구현, 미국·유럽 특허 방어력은 위성 영상 데이터 폭증 국면에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초소형·저궤도 위성 확산이 본격화될수록 탑재체·본체·지상국을 잇는 통신 모듈 수요가 커지는 직접 수혜측으로 판단되는 핵심 장비이다.

수주잔고 685 억, 하반기 폭발 대기

1분기 수주잔고는 685 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7% 증가했다. 위성통신·항공전자·핵심부품이 늘고 EGSE만 줄었다. 하반기 대형 과제와 ANASIS 계열 기대가 붙으면 매출 가시성이 2027년까지 연장되는 구조이며, 단기 적자보다 신규 수주 속도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판단되는 기업이다.

1분기 적자? 양산 전환 전 숨고르기

2026년 1분기 매출은 116 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나 영업손실 12 억원, OPM -10.6%이다. 이는 개발 매출과 국가과제 비중 탓에 수익성은 낮았지만, 위성통신 제작 개시와 하반기 양산 매출 확대가 맞물리면 손익 개선 가능성이 커지는 전환점으로 판단되는 실적이다.

투자지표	2023	2024	2025	2026E	2027E
매출액 (십억원)	55.1	56.8	59.6	81.2	91.5
영업이익 (십억원)	1.2	-2.2	-2.1	2.9	5.4
영업이익률 (%)	2.1	-3.8	-3.5	3.5	5.8
순이익 (십억원)	1.7	-3.1	-2.1	2.6	4.5
EPS (원)	221	-412	-260	270	462
PER (배)	75.6	N/A(-35.3)	N/A(-68.8)	77.7	45.4
PBR (배)	3.6	3.2	3.0	3.0	2.8
ROE (%)	4.8	-8.9	-4.9	4.4	6.4

자료: FnGuide(Quantiwise) 컨센서스, 핀릿 리서치센터

상장일: 20210324